

잊지 말라 승냥이 미제를!
북한 포스터 속 드러난 반미주의

저자

김현민

2000 년 남한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에서 인류학을 공부하고 있다.

차례

1. 들어가며

북한의 반미주의는 북한 정권 생존의 문제다

2. “위력한” 선전선동수단, 포스터

사회주의 국가와 포스터

북한 포스터의 등장배경과 역사

3. 북한 포스터의 반미주의 내러티브

“미제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역사 재해석과 왜곡

“지구상에서 미국을 없애버릴것이다!”-위협과 도발

남조선은 미제의 피해자-남한과 조국통일

4. 나가며

1. 들어가며

북한의 반미주의는 북한 정권 생존의 문제다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위협에 관련된 뉴스를 매우 자주 접한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서 미사일을 던졌다는 뉴스는 일상이 되었고, 우리는 북한의 핵에 대해 다소 무감각해졌다. 북한이 적어도 지금 당장은 핵 미사일을 미국 본토에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북한이 정말 미국에 핵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북한은 왜 무리하게 핵실험을 진행하는 것일까? 혹자는 북한이 핵실험에 돈을 낭비하지 말고, 그 돈으로 북한 국민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은 위협이기도 하지만, 비명이기도 하다(정병호 2020: 29). 절박하고 가난한 북한주민들이 넘치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북한이 핵에 투자하는 것은 체제를 유지하고 국제 사회에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 수도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정을 구하지 않겠다는 북한 사람들의 당당한 문화 패튼의 표출일 수도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은 ‘반미주의(Anti-Americanism)’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심양섭(2013)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 반미주의의 유형은 ‘동원된 급진적 반미주의’다. 반미주의는 북한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이자

존립기반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정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는 반미주의를 포기하고 나아가 정권 붕괴를 야기하기 때문에 ‘딜레마’다. 특히, 북한 반미주의가 국제적인 외교의 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인민들’ 또한 강한 대미 적개심을 갖도록 북한 정부는 인민들을 상대로 철저하게 반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 반미주의의 이념은 국가 주도의 “왜곡과 날조를 동반한 강제적이고도 철저한 세뇌교육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입된다(심양섭 2013: 139).” 북한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부터 약 한 달간을 ‘반제반미투쟁월간’으로 정하고, 미국을 규탄하는 대규모 군중대회를 열어왔다. 또한 북한의 반미교육은 영화, 문학, 포스터, 구호, 우표 등 일상에서 다양한 방법과 형식으로 진행된다(김옥자 2019: 342).

이 책은 북한의 반미주의 포스터를 분석해 북한 인민들에게 반미주의의 이념이 어떻게 주입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왜 북한의 반미주의를 포스터를 통해 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미지 중심의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버크(2005)에 따르면 “이미지가 한 시대를 담아내고 있는 이미지로 표현된 의견, 이데올로기적인 의미와 시간적 의미를 모두 포괄하는 사회관이라는 말로 요약될 경우, 이미지는 문서자료들이 지나쳐 버리는 사회적 현실의 단면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황동하 2005: 52 에서 재인용).” 즉, 이미지를 통해 특정 문화를 담고 있는 시대를 읽어낼 수 있다. 특히 포스터는 일반 회화와 차별되는 기동성과 함축성을 지닌 강력한 선전선동수단이다. 과거에 포스터는 한번에 많은 양을 복사해서 유포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빠르게 전달하여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매체였다. 오늘날에도 포스터는 여전히 중요한 홍보 매체다.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안에서는 공익 광고와 각종 상업광고 포스터들을 볼 수 있다. 선거기간이 되면, 국회의원 선거 포스터들이 거리 곳곳에 부착된다.

나는 북한 포스터에 집중해서 반미주의를 읽어내려고 한다. 다만 현재 북한에서 각 포스터가 어느 장소에 부착되고, 북한 인민들이 이를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 포스터의 내적인 측면, 그리고 포스터가 북한의 매체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을 다룰 것이다. 북한 포스터를 읽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포스터의 묘사 대상, 표어, 표현방법, 구도, 색채 등을 확인하고, 이것이 북한 사회의 어떤 상징들과 관련되었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포스터의 대상이 북한의 다른 매체(수필, 소설, 언론 등)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지 비교하고 연결하고자 한다.

2. “위력한” 선전선동수단, 포스터

포스터의 시작과 사회주의 국가의 포스터

포스터는 텔레비전이 보편적으로 보급되지 않았던 시대에 대중에게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매체였다. 포스터가 최초로 진가를 발휘했던 곳은 자본주의의 상업미술이었다. 19세기 말 그래픽 디자인과 인쇄산업의 발달로 포스터는 미술의 한 장르로서 발전한다. 근대적인 형태의 그래픽 포스터를 창시한 사람은 ‘현대 포스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랑스의 화가 ‘툴루즈 로트렉(Henri de Toulouse Lautrec, 1864-1901)’이다. 로트렉은 파리의 밤 공연과 배우들을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들을 제작했다. 로트렉이 디자인한 생동감 넘치고 독특한 포스터들 덕분에, 그가 그린 포스터 속 배우들은 유명해지기도 했다.¹

¹ Benjamin Genocchio, “ART REVIEW: Posters for This and That And Propaganda, Too,” *New York Times*, 2006. 3. 12. 일자

<https://www.nytimes.com/2006/03/12/nyregion/art-review-posters-for-this-and-that-and-propaganda-too.html?searchResultPosition=5> (2020. 6.1. 접속).

이후 포스터는 예술과 상업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선전 매체로 이용되었다. 목적과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포스터의 특성 때문에, 포스터는 상업적이고 공익적인 목적을 넘어 이념을 전달하는 정치적 수단으로도 사용된 것이다. 과거에는 민중들의 문맹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시각적 이미지로써 이데올로기를 전달해야한다는 필요성도 있었다(김연주 2013: 204). 특히 러시아에서는 1 차 세계대전 시기에 포스터가 새로운 정치 선전물로서 자리잡게 된다(황동하 2005: 240). 사회주의 소비에트 시대에는 레닌, 스탈린을 형상화한 포스터들이 많이 제작되었다. 스탈린은 레닌 숭배와 우상화 작업을 통해 불안한 정권을 안정시켰고, 레닌의 후계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정당화하면서 국민들이 자신을 숭배하게끔 만들었다. 1930 년대 나치 독일에서도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정치포스터들이 제작되었다(김연주 2013: 204).

북한 포스터의 등장배경과 역사

북한의 포스터는 북한이 소비에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미술을 수용하면서 만들어졌다. 북한은 예술작품에 민족적 형식과 더불어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음으로써 인민들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한에서 포스터는 1960 년대까지 ‘포스타’로 불렸으나, 1960 년대 후반부터 ‘선전화’로 불리게 되었다(김효진 2015: 7). 북한의 포스터는 말 그대로 선전선동을 목표로 하는 예술이다. 김정일의 『미술론』(1992)은 “조국 해방전쟁시기부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 건설시기에 기동성이 있고 호소성 강한 출판미술을 통해 인민들과 인민군 군인들을 영웅적 투쟁에 힘있게 불러일으켰다.”라고 밝히고 있다. 포스터는 인민들에게

정치적 자각과 혁명적 열정을 주입하고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전투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김정일 1992: 120-121).

북한의 선전 포스터는 현재에도 과거의 표현방식과 큰 차이가 없는 극단적인 프로파간다 기법을 고수하고 있다(김연주 2013: 204). 당과 지도자의 정책에 따라 직접적으로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고, 함축적이고 집약적으로 간결한 화면을 조성한다. 특히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북한 포스터도 시대에 따라 표현방식에서 부분적인 변화를 겪었다. 평면적인 화면 구성에서 입체적인 3D 표현을 더하거나, 5 가지 색상을 제한하던 것에서 점차 파스텔톤도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했다(류현국 2019: 37-38).

북한 포스터의 소재는 다양하다. 육영수(2013)는 1990 년부터 2000 년 사이의 북한 포스터를 크게 6 개의 주제로 분류하였다. “1) 경제 부흥과 생산활동 장려, 2) 북한 체제와 이데올로기 선전, 3) 김일성-김정일 개인숭배와 세습체제 옹호, 4) 병영주의와 선군정치 지지, 5) 남북한 통일기원, 6) 반미반제국주의”가 그것이다. 북한 포스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소재는 국가의 경제 부흥과 생산력 증가를 독려하는 것이다.

이 책은 북한의 반미주의 포스터를 살펴본다. 나는 북한의 반미주의 포스터의 범주를 ‘미제’ 혹은 ‘미국(USA)’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포스터로 한정했다. 포스터 표어에 직접적으로 ‘미국’이라는 말이 적혀있지 않아도, 배경 그림에 미국(USA)라는 단어가 쓰여있고, 미국을 형상화한 그림이 있으면 반미주의 포스터로 포함시켰다. 제국주의 세력을 비판하는 포스터에서 미국이 등장하면, 반미주의 포스터로 보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UC San Diego Library 에 온라인으로 아카이빙된 8 점의 반미주의 포스터와 North Korean Posters: The David Heather Collection 에 수록된 50 점의 반미주의 포스터를 수집했다. 두 자료에서 수집한 것 중 겹치는 것을 제외하면 총 54 점의 포스터를 수집했다.

북한 반미주의 포스터를 내용에 따라 3 가지로 분류하였다.

- 1) 역사 재해석과 왜곡
- 2) 미국에 대한 위협과 도발
- 3) 남조선은 미국의 피해자

내용에 따라 포스터 8 점을 선정했고, 이 8 점의 포스터를 중심으로 북한 반미주의의 맥락을 읽어내려고 한다.

3. 북한 포스터의 반미주의 내러티브

“미제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역사 재해석과 왜곡

북한은 역사 속 미제의 악행을 부각하면서 인민들에게 반미 감정을 주입한다. 북한은 해방기를 거치면서 미국을 재해석하는 이론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과장을 섞거나, 허구를 가미하여 부정적인 미제의 표상을 만들어내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이 학살의 주체라는 점이다(남원진 2011: 214-215). 북한의 반미주의 포스터에서도 역사 재해석과 왜곡은 드러난다. 북한의 포스터는 직접적이고, 직관적으로 미제의 악행을 표현하고 있다. 다음 포스터들을 통해 북한이 역사 속 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잊지 말라 승냥이 미제를!

북한에서는 미국을 ‘미제(미제국주의)’라고 부른다. 그리고 미제에 대한 가장 빈번한 수식어 중 하나는 ‘승냥이’이다. 승냥이는 개과에 속하는 야생



「잊지 말라 승냥이미제를!」

©UC San Diego

육식동물이다. 미제와 승냥이를 합쳐 ‘미제승냥이놈’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포스터 「잊지 말라 승냥이미제를!」을 보면, 미제인 군인이 아기를 우물에 빠트리려고 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기의 엄마로 보이는 여성은 울부짖고 있지만, 다른 미군은 그 여성을 붙잡아 제지하고 있다. 아기를 우물에 빠트리려고 할 정도로 비인간적인 미제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제일 왼쪽에 있는 미군의 군복 위에 붙은 휘장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 8군의 휘장이다. 따라서 이 포스터는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이 북한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초도화시켜 놓았는가 밝히고, 그러한 승냥이 미제를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미국을 ‘승냥이’로서 형상화하는 작업의 시작은 북한 반미문학의 시조인 한설야의 소설 『승냥이』(1958 [1951])라고 할 수 있다. 『승냥이』는 해방기 일제 시대,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미국 선교사를 부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소설 중 한 구절인 “후치날 같은 메부리코 끝이 승물스럽게 웃입술을 덮은 늙은 승냥이”(한설야 1958 [1951]: 32)를 보면 선교사를 ‘승냥이’로 묘사한 것을 볼 수 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1947년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의 반미관이 시작되었는데, 이때의 반미관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조선 기독교는 미국인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되었고, 기독교에 기반을 두었던 조선민주당²은 반공, 친미적 성향을 띄었다. 북한의 반미관은 기독교에 대한 비판에서 나아가, 6.25 전쟁 당시 미군의 무차별 폭격과 민간인 학살 등의 악행이 더해지면서 더 강화되었다. 그 결과 미제가 ‘승냥이’와 동일하다는 반미관이 창출된 것이다(남원진 2011: 220-222).

북한의 교과서에도 ‘미제 승냥이, 미국놈, 원썩’ 등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러한 자극적인 단어로 미국에 대한 적대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예컨대 소학교 1학년 산수 문제를 보자. “인민군대 아저씨들이 미제 승냥이 놈 땅끄를 처음에 6대를 까부셨습니다. 다음에 2대 까부셨습니다. 두 번에 몇대를 까부셨습니까?” 교과서에는 ‘승냥이’ 미국놈이라는 단원이 등장하는 것은 물론, 수학 문제에서조차 반미감정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한다(김옥자 2019: 350).

흥미로운 점은 이 포스터 속 미군이 붙잡고 있는 아기의 얼굴이 전혀 아기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기가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 성인의 모

² 조선민주당은 1945년 평양에서 조만식이 창당한 민족주의 계열의 정당이다.

습을 하고 있다. 이 아기를 보고있으면 중세 성화에 묘사된 아기 예수의 모습이 떠오른다. 중세 성화 속 아기 예수의 얼굴은 40대 아저씨 같다. 미술사학자인 Matthew Averett 에 따르면 아기 예수는 아기가 아니라 ‘작은 남성’으로 여겨졌다.³ 예수는 아무리 아기일지라도 인간과는 차별되는 완벽하고 불변한 존재여야 했다. 또한 중세 예술가들은 사실적인 묘사에 관심이 적었다. 중세 성화에서는 종교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는 꼭 아기처럼 그려질 필요도 없었다. 북한 포스터 속 묘사된 아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포스터에서 북한은 악한 미제와 달리 순수한 존재로서 제시되어야하기 때문에 아기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은 결코 무력한 존재여서는 안된다. 북한은 승냥이 미제와 맞서 싸우는 강인한 민족이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아기는 귀여운 아기의 모습이 아닌 강인한 어른의 모습으로 그려졌다고 볼 수 있다.

잊지말자 신천의 원한을!

포스터 「잊지말자 신천의 원한을!」은 아기를 업은 채 밧줄에 묶인 여성과 불길에 휩싸여 죽어가고 있는 아기들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미군이 무고한 아기들까지 학살하고, 온 마을을 불길로 만든 재난의 상황이다. 붉은 색 배경이 불의 이미지를 상기해주고, 위급함을 고조시키고 있다. 밧줄에 묶여 피를 흘리고 있으면서도 결연한 표정으로 서있는 여성은 어머니 북한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서있다. 북한의 여성은 나약한 존재로만 표상되지 않는다. 여성들도 강인하고 단단한 인물로서 그려진다.

³ Phil Edwards, “Why babies in medieval paintings look like ugly old men,” *Vox*, 2015. 7. 28. 일자
<https://www.vox.com/2015/7/8/8908825/ugly-medieval-babies> (2019. 6. 10 접속).



「잊지말자 신천의 원한을!」

© David Heather 2008

왜 북한의 남성들이나 군인이 아니라 여성과 아이들을 학살 당하는 대상으로 묘사했을까? 여성과 아이들은 ‘무고한’ 존재들이다. 그들은 전쟁에서 직접 총을 들고 싸울 수 없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여성과 아이들은 동시에 나약한 존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아이들이 강인한 모습으로 표상된다. 여성과 아이들은 북한 민족을 상징한다. 북한 민족은 어떠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민족이어야 한다.

이 포스터는 한국전쟁 당시 황해도 신천군에서 3만 5천명의 민간인들이 학살되었던 “신천군주민학살사건”⁴을 다루고 있다. 하단에 미군이 매서운 표정을 지으며 총을 들고 서있는데, 북한은 신천군 사건의 범인을 미국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1950년 10월 한국전쟁 시기에 3만 5천여명의 민간인들이 미군에 의해 학살당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미국이 신천군 사건에 개입하였음을 나타내는 여러 증언과 증거들을 제시했지만, 이는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신천군 사건의 주범은 우익치안대였다. 학살당한 사람들의 숫자도 부풀려진 것이다.

북한은 반미주의를 증폭하기 위해 신천박물관을 건립하였다. 북한은 “신천군주민학살사건”을 생생하게 공간으로 재현함으로써 미군들에게 끔찍한 증오의 이미지를 씌우고, 관람객들이 반미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했다(김옥자 2019 :342). 이처럼 북한은 포스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반미주의를 양산한다.

미제는 50년대 참패와 <푸에블로>호의 운명을 망각하지 말라!

커다란 붉은색 총자루가 검은색 선박 한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다. 배경에는 십자가로 가득한 묘지 앞에서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인 채 서있는 한 남자가 보인다. 이 포스터는 푸에블로호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푸에블로호 사건은 1968년 1월 23일 북한 원산항 앞 공해에서 미국의 정보 수집함인 푸에블로호가 북한의 해군초계정에 의해 납치된 사건이다. 따라서 가운데 붉은색 총자루에 관통당한 검은색 선박은 북한에 의해 납치된 미국의 푸에블로호를 나타낸다. 푸에블로호 사건은 대외적으로 북한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권력 강화와 체제 안정을 위해 의도적으로 저지른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푸에블로호 사건은 북한의 승리로 평가받는데, 북한이 결과

⁴ 남한에서는 ‘신천군 사건’으로 불린다.

적으로 미국의 정보수집활동에 제약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미국과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이 협상에서 받아들인 미국 우드워드 장군의 서명이 담긴 문서는 정전협정에 이은 ‘제 2의 항복문서’로 북한 사회에서 선전되고 있다(박지수 2019: 118). 이 포스터 문구에 드러난 50년대 참패는 정전협정이고, 이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첫번째 항복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포스터에 그려진 미군은 위협적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오히려 무덤 앞에서 침묵하고 힘없이 굴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미제는 50년대 참패와 <푸에블로>호의 운명을 망각하지 말라!」

© David Heather 2008

그런데, 푸에블로호의 승무원들은 한 명의 사망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으로 송환되었다. 따라서 배경의 십자가 무덤은 실제 푸에블로호 사건 사망자들의 무덤이 아니다. 배경 속 무덤은 “푸에블로호 사건을 망각한다면,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미국에 대한 경고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의 『미술론』(1992: 120)은 “일반회화의 방법을 가지고서는 선전화의 특성을 살릴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 포스터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회화에 적용되는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다. 도상을 시각적으로 단순하게 묘사하여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다. 이 포스터는 도상들 뿐만 아니라 색도 매우 집약적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포스터의 색을 살펴보자. 빨간색, 파란색, 흰색, 검은색만이 절제되어 사용되었다. 북한의 최근 포스터에는 파스텔톤이 사용되고, 다양한 색상을 볼 수 있지만, 초기 포스터에는 색상을 다섯 가지 이하로 제한했다. 색상에 따라 수용자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인상이 달라져서 색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포스터 중앙에는 붉은색 총과 검은색 푸에블로호가 놓여있다. 붉은색과 검은색의 대비를 통해 시선이 집중된다. 이를 통해 진취적이면서 단호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수용자로 하여금 강렬한 에너지를 느끼게 한다(김연주 2013: 206).

앞서 살펴본 포스터들을 통해 북한이 한국 전쟁 시기 미군의 악행들을 과장하고, 신천지 사건의 주범을 미군으로 왜곡하면서 ‘승냥이 미제’의 표상을 만들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포스터들 속에서 미군은 악랄한 존재로, 북한은 순수하지만 강인한 존재로 그려진다. 반면 마지막 포스터에서는 푸에블로호 사건이 미군의 패배로 선전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지구상에서 미국을 없애버릴것이다!”-위협과 도발

미제침략자들을 영원히 쓸어버리자!



「미제침략자들을 영원히 쓸어버리자!」

©UC San Diego

북한 포스터는 역사를 왜곡함으로써 반미주의를 고양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위협과 도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미제침략자들을 영원히 쓸어버리자!」는 녹색 군복을 입은 북한군이 총으로 미군을

짓누르는 장면이 묘사된다. 북한군의 손에 비해 미군을 생쥐처럼 작게 그려서 미군의 힘없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크기를 과장하고 축소하는 표현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또한 대각선 구도를 통해 극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다른 반미주의 포스터에도 앞의 포스터와 비슷한 구도가 자주 등장한다. 거인으로 묘사된 북한군이 손으로 미군을 뭉개는 장면에 더불어 총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거나 발로 짓누르는 장면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포스터에 따라 미군을 형상화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해보아야 한다. 「잊지 말라 승냥이미제를!」과 「잊지말자 신천의 원한을!」에서는 미국을 악랄하고 힘센 존재로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잔인성과 무자비함을 부각하고 있다. 미제는 승냥이다. 반면 「미제침략자들을 영원히 쓸어버리자!」에서는 북한을 거인으로 묘사하고, 미군은 힘없는 존재로 표상하고 있음으로써, 미제에 위협을 가한다. 위협을 가하는 존재의 위치가 뒤바뀐 것이다.

물론, 북한은 미국을 결코 힘이 약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북한에게 미국은 전세계를 지배하는 최강의 제국주의 세력이다. 그리고 북한은 그런 최강의 제국주의 세력과 맞대결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다(정병호 2020: 190-191). 하지만, 포스터에서 ‘적’은 나약한 존재로 그려져야 한다. 이를 통해 인민들에게 적을 반드시 무찌르고 깔아뭉개야 한다는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이처럼 북한 포스터에 나타나는 미군의 이미지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북한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에 따라 미국의 표상은 역동적으로 나타난다.

지구상에서 미국을 없애버릴것이다!



「지구상에서 미국을 없애버릴것이다!」

©UC San Diego

성조기로 뒤덮인 미국 땅에 새빨간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다. 미사일은 미국 땅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 미사일이 미국 땅으로 다가갈수록, 크기가 점점 축소되어 표현되었다. 이러한 표현 방식으로 더욱 공간감이 드러나고 속도감과 긴장감이 강조된다. 북한 포스터의 문구는 대부분 그림 하단에 배치된다. 하단에 배치하는 것이 안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이

다. 이 포스터의 문구 또한 하단에 배치되어 있지만, 살짝 각도를 주어 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북한은 핵, 탄도미사일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북한은 1970년대 후반부터 탄도 미사일 개발을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부터 자국에 탄도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위 포스터에 제시된 미사일의 이름은 ‘대동 1’인데, 이 포스터가 제작된 시기가 1998년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1998년 북한의 첫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인 ‘대포동 1호’와 관련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발사 당시에 남한 정부는 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으나, 2005년 실패한 인공위성 발사체임을 인정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은 발전하여, 현재 일부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한반도를 넘어 미국의 알래스카까지 도달할 수 있다. 잠수함에 탄도 미사일을 잠수함에 탑재한다면, 충분히 미국 본토를 모두 공격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정말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일까? 안문석(2017)은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핵 미사일 전략을 ‘역지와 대화의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적이 승리할 수 없음을 확신시키고, 적이 공격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역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지, ‘진짜’ 공격은 아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과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북한의 ‘생존 전략’이다.

이 포스터도 미국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라고 할 수 없다. 미사일을 발사해 지금 당장 미국을 파괴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다. 포스터가 북한 인민들을 대상으로 만든 것임을 고려해볼 때 인민들의 체제결속을 더욱 강화하는 작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민들에게 북한이 분명하게 핵과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자부심을 부여한다. 따라서 체제에 대한 인민들의 만족과 충성의 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안문석 2017: 177). 이처럼 포스터의 표면적 위협은 실제 의도와 다르다.

⁵ 로켓의 추진력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이다.

남조선은 미제의 피해자-남한과 조국통일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 David Heather 2008

북한에서 남한은 미국만큼이나 언제나 중요한 대상이다. 북한 포스터에서 반미주의와 남한, 그리고 통일의 서사는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 포스터에서도 북한은 거인으로, 미군은 나약한 생쥐처럼 그려진다. 팔다리가 다부

지고 결연한 표정의 북한 남성이 주먹으로 미군을 내려치고 있다. 반면, 미군의 팔다리는 가늘게 그려져 있다. 나약한 미군은 북한의 주먹질에 종이처럼 맥없이 떨어질 뿐이다. 미군 옆으로 미국의 성조기도 갈기갈기 찢겨 함께 떨어지고 있다.

이 포스터 뿐만 아니라, 북한의 동요에서도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제를 몰아내자’는 서사가 등장한다. 다음은 ‘당장 나가라’라는 북한의 동요다.⁶

남녘땅에 기여든 미국놈들아
나가라 나가라 당장 나가라
남녘땅도 우리 땅 조선 땅이다
나가라 나가라 당장 나가라

유튜브에서 북한의 어린이들이 위 노래 가사에 맞추어 힘찬 울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사 중간에 아이가 미군 병사 허수아비의 머리를 장난감 총으로 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는 북한에서 국제 아동절에 실시하는 ‘미국 놈 때리기 놀이’를 나타낸다. 이 놀이는 5~7 명의 어린이들이 한 조를 이루어서, 바통을 주고 받으며, 미군 허수아비 병사를 치고 돌아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심양섭 2013 :140).

이 포스터에서 보다 주목할 점은, 단순히 반미주의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의 동요에서 ‘남녘땅도 우리 땅 조선땅이다’라는 가사에도 드러나듯, 북한은 남한을 동등한 통일의 공동주체로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통

⁶ ‘당장 나가라’ <https://www.youtube.com/watch?v=HT5EyrwXnYQ> 2016. 2. 28. 일자 (2020. 6. 3. 접속).

일의 공동주체인 남한을 대등하고 공정하게 인식하지 않고 온정주의적인 입장에서 해방을 시켜주어야 할 대상(차승주 2012:281)”으로 바라보고 있다. 북한은 남한이 미제의 식민지이고, 남한 땅은 미제에 의해 억압된 공간이라고 교육하고 있다. 북한에서 설명하는 미제와 남한은 무엇일까? 다음 포스터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미군의 천인공노할 만한 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한다!



「미군의 천인공노할 만한 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한다!」

©UC San Diego

이 포스터의 도상에는 직접적으로 미군이나 북한군이 등장하지 않는다. ‘남조선 여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녀의 상의는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 오른쪽에 매부리코를 지닌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저 으스스한 그림자

는 미군이다. 저 어두운 곳에서 미군은 ‘남조선 여성’들에게 어떤 만행을 저지른다는 것일까? 나는 이 북한 포스터 속 ‘남조선 여성’들은 6·25 전쟁 이후 본격화된 ‘양공주’를 표상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양공주’는 6·25 전쟁 전후로 미군이 한국에 오면서 탄생했다. 해방 후 미군 부대 근처에서 생긴 마을인 기지촌에서 사는 여성들을 ‘양공주’라고 일컬었다. ‘양공주’들은 기지촌에서 미군을 위한 옷가게, 신발가게, 음식점, 술집 등에서 일했고, 그 중 50%정도가 미군 상대 성매매 여성이었다고 한다. 양공주에 대한 공론화는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공주’는 그동안 주로 한국 소설에서 표상되었다. 소설에 등장하는 양공주는 전쟁의 결과로 ‘손상되고, 더럽혀지고, 위험한’ 여성들로 그려진다. ‘양공주’는 한국 전후 사회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양공주’ 문제를 북한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미군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남한 사회도 ‘양공주’에 대해서 매우 폭력적이었다. 소설에서 표상된 것처럼 ‘양공주’를 바라보는 남한 사람들의 시선은 연민, 무시, 경멸 등으로 나타났다. 양공주에 대한 남한 정부의 정책도 이중적이었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성매매를 금지했지만, ‘분리정책’을 통해 기지촌을 공고히 하고, 여성의 몸을 ‘관광자원화’하였다(정재림 2012: 458). 이런 실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포스터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남한과 미국을 그리고 있다. 남한을 미제의 일방적인 피해자로서 말이다. 그리고 한국 소설에 ‘더럽혀진’ 존재로 그려진 ‘양공주’들을 보면, 남한 사회에서도 전후 ‘양공주’ 문제는 올바르게 인식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포스터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남한이 미제의 피해자임을 부각하고 있다. 김일성은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자기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만들었습니다. … 실제적 통치자는 바로 미국 침략자들입니다.”라고 인민들에게 교시하였다(재일본조선인총련합

회 1978a: 3 에서 재인용). 그리고 미국이 남한에게 행하는 ‘원조’는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이자 “침략과 약탈의 도구”라고 설명하고 있다(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1978a: 10). 즉, 북한은 남한이 미제에 지배당하는 식민지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남과 북의 인민들은 한 피를 이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판이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나라의 주권과 생산 수단을 자신들의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나날이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남조선사회는 소수 특권층에게는 <천당>이지만 대다수 인민들에게는 지옥이다』 (1978)

위의 인용문은 북한 사람들은 생산수단을 손에 쥐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남한 사람들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북한은 김일성 수령님 덕분에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미제의 식민지에 불과한 남한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미제의 “부르쥬아 인생관”이 공산주의 인생관에 비해 열등하다는 것을 교시한다. 김명호(1978)에 따르면 주체의 혁명적 인생관은 참되고, “진보적 인생관 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제의 ‘부르쥬아 인생관’ 아래에서 살고 있는 남한의 사람들은 불행하다. 남한에서 소수의 지주와 자본가는 배부르게 살지만, “로동자”와 농민들은 가난하게 굶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반미주의 포스터는 단순히 미제를 비판하는 서사만을 담고 있지 않다. 미제에게 고통받는 남한을 묘사하면서, 북한의 체제와 삶이 더 우월하다는 점도 인민들에게 주입한다.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악의 총본산 미제의 사지를 찢어버리자!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악의 총본산 미제의 사지를 찢어버리자!」

© David Heather 2008

미제가 거대한 두 손 사이에서 빨래처럼 쥐어짜지고 있다. 미제는 메부리코에, 주름이 가득한 얼굴로 묘사되고, 군복을 입은 남성 미군으로 묘사되고 있다. 북한의 손과 남한의 손이 힘을 합쳐서 ‘악의 총본산인 미제의 사지를 찢어버리자!’라고 외치고 있다. 포스터 미사일에는 ‘대조선 핵전쟁 정복’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다. 한반도를 핵으로 정복하려는 미제를 몰아내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것이다.

인류학자 에반스-프리차드(E. E. Evans-Pritchard, 1902-1973)은 누어 사회를 조사하여 ‘분절적 대립(segmentary opposition)’이라는 개념을 도출해내었다. 집단의 내부관계는 층위를 달리하여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집단의 작은 단위들은 서로 맞서 대립하면서도,

더 큰 적이 나타나면 서로 연합해서 싸운다(E.E. 에반스-프리차드 1994[1940]: 177-243). 예컨대, 경상도와 전라도는 ‘지역주의’의 관점에서 서로 대립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립은 항상 일어나지 않는데, 한 일축구를 할 때는 일본이라는 더 큰 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경상도와 전라도는 결합해서 하나가 된다.

‘분절적 대립’ 개념을 적용하면, 북한과 남한에서 대립의 층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북한과 남한은 휴전 상태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존재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더 큰 적이 등장하면, 남한과 결합하여 싸울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 “악의 총본산 미제”를 물러나게 할 수만 있다면, 휴전 상태로 대치 중인 남한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다룬 포스터들을 통해 북한의 반미주의 포스터에서 미제에 대한 악랄함에 더해 남한과 조국통일에 대한 내러티브가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미제는 남한을 침략한 악한 존재고, 남한은 미제에 지배당하며 고통받는 존재로 형상화된다. 이를 통해 북한의 체제가 우월함을 강조하고, 남한은 북한에 의해 해방되어야 할 존재임을 인민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나아가 북한과 남한이 미국이라는 적 앞에서는 연합할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난다. 이처럼 북한은 포스터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남한과 미국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4. 나가며

지금까지 북한 포스터를 통해 북한 반미주의의 구체적인 맥락을 밝혀보았다. 북한의 포스터의 목적을 살펴보고 그것이 북한의 반미주의 포스터에 어떤 특성으로 드러나는지 설명했고, 또한 북한 포스터 속 드러난 반미주의의 서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징으로 나타나며, 북한에서 어떻게 담론이 형성되고 인민들에게 교육되는지 살펴보았다.

북한 포스터 속 드러난 ‘미제’의 표상은 그 내용과 목적에 따라 다름을 확인했다. 역사와 관련해서는 악랄한 ‘승냥이 미제’의 표상을 만들고, 북한은 순수하지만 고난을 이겨내는 민족이라는 내러티브를 만들어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에 위협받는 존재가 아닌 강인한 존재라는 점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과 도발의 메시지를 통해 드러났다. 반미주의는 조국 통일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미국은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적으로 형상화된다. 또한 남한을 미제의 피해자로 부각하여 남한을 온정주의적 입장에서 해방시켜주어야 하는 존재로 그리고 있다.

하지만, 북한 포스터에 드러난 반미주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북한이 반미주의 포스터를 통해서 정말 미국에게 도발하려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포스터는 대외용이 아니라 대내용이다. 북한의 반미주의 포스터는 북한 인민들을 선동하는 데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 북한의 포스터는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로 인민들에게 정치적 자각과 혁명적 열정을 주입하고 대중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북한은 반미주의 서사를 통해 미제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켜 체제를 결속시키고, 또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사회주의 주체 사상의 우월성을 주입한다.

이 책의 한계가 있다면, 북한의 반미주의 포스터에 대해 실제로 북한의 인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받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과연 북한 인민들은 포스터를 보면서 반미주의의 감정을 느낄지, 북한 인민들은 얼마나 반미주의를 체화하고 있는지 담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과 국제적 정세에 따라 북한 포스터에 드러나는 반미주의의 변모 양상 또한 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통해 북한에게 미국이라는 존재의 의미와 그 무게가 어떠한지 이해할 수 있었다. 미국이라는 세력과 대결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자긍심은 북한이라는 나라를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북한이 불가해하고 고립적인 나라처럼 느껴지지만, 북한은 결코 섬이 아니다. 북한의 행동은 외부주체와의 상호작용에서 초래된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참고문헌

북한 포스터

UC San Diego

- 「미제침략자들을 영원히 쓸어버리자!」
- 「미군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한다!」
- 「지구상에서 미국을 없애버릴것이다!」
- 「잊지 말라 승냥이미제를!」

David Heather 2008

- 「미제는 50 년대 참패와 <푸에블로>호의 운명을 망각하지 말라!」
-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악의 총본산 미제의 사지를 찢어버리자!」
- 「잊지말자 신천의 원한을!」

북한 저서

- 김명호, 1978, 『미제가 남조선에 퍼뜨리고 있는 부르쵸아 인생관의 반동적 본질』, 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부.
- 김정일, 1992, 『미술론: 1991 년 10 월 16 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1978a, 『미제국주위는 남조선을 식민지 군사기지로 만든 침략자이며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민족적 재난과 고통을 가져다준 철천지원수이다』.

_____, 1978b, 『남조선사회는 소수 특권층에게는 <천당>이지만 대다수 인민들에게는 지옥이다』.

_____, 1978c,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한설야, 1958[1951], 『(단편소설)승냥이』, 평양:조선작가동맹출판사.

논문 및 간행물

김연주, 2013, “정치 포스터에 나타난 프로파간다 유형과 시각적 수사 접근 연구,” 『디자인 지식저널』 26(0): 201-210.

김옥자, 2019, “북한의 반미선전·선동과 신천 박물관에 대하여,” 『한국정치연구』 28(1): 341-366.

김효진, 2015, “이미지에 드러난 북한체제의 정치커뮤니케이션: 1950~60년대 포스터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9(2): 1-35.

남원진, 2011, “미제와 승냥이- “조국해방전쟁”기의 반미관에 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25(0): 213- 236.

류현국, 2019, “북한 정치 선전 포스터 디자인의 역사적 변천으로 형성된 북한 스타일 (1945-2019) -시대구분으로 본 북한 선전화의 창작과 그 특징-,” 『한국디자인학회』 2(1): 26-39.

박지수, 2019, “미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함의,” 『국방과 기술』 (483): 114-119.

심양섭, 2013, “탈냉전기 북한 반미주의의 유형과 특징 연구,” 『북한학보』 38(2): 106-146.

안문석, 2017,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 『한국동북아논총』 (82): 173-190.

- 육영수, 2013, “이미지와 슬로건으로 읽는 북한의 정치문화,” 『역사와 경계』 86(0): 131-158.
- 정영철, 2011, “북한의 반미,” 『신아세아』 18(2): 146-170.
- 정재림, 2012, “1950-60년대 소설의 ‘양공주-누이’ 표상과 오염의 상상력,” 『비평문학』 (46): 457-478.
- 차승주, 2012, “김정일 시대 북한의 학교 통일교육-중학교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8(2): 281- 310.
- 황동하, 2005, “소비에트 정치포스터에 나타난 스탈린 개인 숭배의 “정치 문화사”,” 『이화사학연구』 32(0):239-261.

단행본

- 에반스-프리차드, E.E, 1994[1940], 『누어인』, 서울: 탐구당.
- 정병호, 2020, 『고난과 웃음의 나라 : 문화인류학자의 북한이야기』, 파주: 창비.
- 피터 버크(박광식 역), 2005, 『이미지의 문화사』, 서울: 심산.
- Heather, David, and Koen De Ceuster, 2008, North Korean Posters: The David Heather Collection, Munich; London: Prestel.

인터넷 자료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군사력- 전략무기 개발”
<https://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MR108> (2020. 6. 8. 접속).

‘당장 나가라’

<https://www.youtube.com/watch?v=HT5EytwXnYQ> 2016. 2. 28. 일자
(2020. 6. 3. 접속).

Benjamin Genocchio, “ART REVIEW; Posters for This and That And Propaganda, Too,” *New York Times*, 2006. 3. 12. 일자.
<https://www.nytimes.com/2006/03/12/nyregion/art-review-posters-for-this-and-that-and-propaganda-too.html?searchResultPosition=5> (2020. 6.1. 접속).

Phil Edwards, “Why babies in medieval paintings look like ugly old men,” *Vox*, 2015. 7. 28. 일자.
<https://www.vox.com/2015/7/8/8908825/ugly-medieval-babies>
(2019. 6. 10 접속).

잊지 말라 승냥이 미제를!

북한 포스터 속 드러난 반미주의

발행 | 2020년 6월 16일

저자 | 김현민

펴낸이 | 김현민

펴낸곳 | (주)북한의 인류학

주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전화 | 880-5243

팩스 | 878-6562

이메일 | sbnulue@snu.ac.kr

사장 | 정향진

이사 | 황혜림, 손성규

값 13,000 원

ISBN | 978-89-0000-0000-0

Copyright © 김현민 2020

본 책의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